

겨울철 품질 좋은 퇴비 생산 위한 시설관리법 퇴비사 찬바람 막아야

농진청 “새 분뇨 투입할 때 수분 60% 조절해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겨울철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퇴비 부숙(썩혀서 익힘) 관리에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퇴비화 시설은 크게 퇴직식과 기계 교반식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분뇨를 쌓아둔 상태로 부숙하는 퇴직식 시설을 이용한다. 일부 규모가 큰 농가나 전문 퇴비화 시설 업체에서는 기계 교반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에 찬바람이 나 눈 녹은 물이 들어치면 퇴비 부숙을 방해하므로, 벽체나 지붕 등 파손된 곳을 수리한다. 퇴비화 시설 내부 온도가 10도(C) 이하로 낮아지면 퇴비 부숙 과정에서

미생물 활동이 느려져 퇴비화 효과가 떨어진다. 퇴직식 시설은 개방형이 많은데, 서북쪽에 윈치커튼을 설치하거나 사료 곤포(몽치) 등을 쌓아두면 찬바람을 막을 수 있다. 퇴비단 위치는 별이 잘 드는 남쪽으로 잡고 높이는 2m 이상 평소보다 높게 하는 것이 좋다. 기계 교반식 시설 외부 송풍기에는 방수와 보온 조치를 취해 바깥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분뇨를 퇴비단에 넣을 때는 수분 함량을 60% 내외로 조절한다. 수분이 많은 분뇨는 얼거나 덩어리 지기 쉬워 퇴비 부숙을 방해하고, 기계 교반식 장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퇴직식 시설에서는 추운 날 뒤집기를 자제하고, 2~3일간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시기에 맞춰 한낮에 실시하거나 퇴비단을 깔을 때 하얀 김이 올라오면 뒤집기를 해도 된다. 퇴비화 조건이 잘 갖춰진 기계 교반식 시설에서는 퇴비단 온도가 5도(C) 이상 유지되면 뒤집기 빈도를 줄여도 된다. 젖소를 키우는 이상온 농장주(경기도 화성시)는 “퇴비를 꼼꼼하게 점검해 최적의 부숙 환경을 조성하면 질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동조 과장은 “저온기 적절한 퇴비사 관리로 품질 좋은 가축 분뇨 퇴비를 생산하면 퇴비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고 경축순환농법도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빨갭게 익은 우리 사과 맛보세요”

서울 양재하나로클럽서
‘장수사과’ 19일까지 판촉



장수군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장수의 우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판촉전 행사가 나왔다. 장수군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19일까지 서울 농업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장수사과 특별판매행사를 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판촉행사는 맛과 품질이 우수한 장수사과를 홍보해 고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장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5일 진행된 기념행사에는 장영수 군수와 안호영 국회의원, 정연태 농업유통 대표이사, 김용준 장수농협 조합장, 곽점용 장계농협 조합장 및 관계직원들이 참석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장수군 농

장수군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19일까지 서울 농업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장수사과 특별판매행사를 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특산물을 홍보했으며, 장수사과 200박스 한정 할인판매 및 사과즙 증정 이벤트를 현장 진행해 도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양재동 하나로마트 판촉행사를 통해 고품질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도시민에게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농업과 협력해 장수 농특산물들이 도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2021년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지난 15일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고민하는 시민 리더 22명을 배출했다.

지속가능 도시 이끄는 시민 리더 배출

LX지속가능발전대학 마무리... 22명 수료증 받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공사)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오창환)가 함께하는 2021 LX지속가능발전대학이 마무리됐다. 지난 10월 27일 LX공사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시작된 2021년 LX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지난 12월15일의 마지막 강연을 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고민하는 시민 리더 22명을 배출했다. 그동안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김경태 전남대 교수, 오창환 전북대 교수, 박정원 UB기술사사무소 소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성훈 SK시회지리지연구원 연구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경 전주지속가능발전협

의회 부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해를 돕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문혜선 씨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방향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따”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투자를 위한 기준이나 홍보 수단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 공유와 상생·협력의 위한 네트워크가 마련된 것 같다”면서 “차희 공사도 올해 ESG 경영을 선언한 만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톤 생산... 전년비 7%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북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추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 한 해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69만톤으로, 2020년도 440만톤에 비해 29만톤(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과 병충해 발생 및 비료 공급 상황, 국내의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와 위성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16만톤, 옥수수 159만톤, 감자·고구마 57만톤, 밀·보리 16만톤, 콩 19만톤 및 기타 잡곡 2만톤이다.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13.5만톤(7%)이 증가했다. 벼 재배기간 동안 대체로 기상 여건이 양호했고, 벼 여름 무는 시기인 8월에 일사량이 많아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는 작년 대비 7.4만톤(9%)이 증가했다. 5~6월 적당량의 비가 내려 입모와 초기 생육이 양호했다. 7월 중·하순 일부 지역에서 고온과 가뭄으로 개화·수정에 장애를 받았지만,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자·고구마는 작년 대비 37만톤(7%)이 증가했다. 봄 감자는 재배기간 동안 기상 환경이 매우 좋아 생산량이 증가했다. 반면, 여름 감자는 7월 고온·건조로 생산량이 다소 줄었지만 전반적인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밀·보리는 작년 대비 0.3만톤(2%)이 증가했다. 1월 강추위로 월동률이 낮아졌지만 봄철 온난한 기후와 적당량의 우기 생량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콩은 작년 대비 41만톤(27%)이 증가했다. 7월 고온과 토양수분 부족으로 일부 수정 장애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재배기간 동안 적절한 강우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콩 재배면적이 넓어진 것도 생산량 증가 요인 중 하나다. /김윤상 기자

호남통계청-무주군, 농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지면적 1105ha · 밭 2049ha · 과수 1053ha 등으로 조사돼

무주군이 지난 16일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주군 농업 실태조사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무주군이 지난 4월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전북도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사는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1,00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이들의 기본사항과 소득·지출, 농업 일반 및 농업정책 등 4개 부문 31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주군 농업 정책 활용부서는 물론, 지역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관내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표들을 구성했다. 조사에 따르면 무주군 경지면적은 1,105ha, 밭 2,049ha, 과수 1,053ha, 시설 73ha로 작물별 재배면적은 논벼가 802ha, 사과 684ha이다. 논벼의 경우 802ha에서 4,297 수확, 3,234을 판매하며 그 금액은 58억9,800

만원으로 분석됐다. 사과는 684ha에서 수확하는 양이 1만 5,308, 판매량은 1만15,028에 이른다. 한우 총 수육 두수는 7,478두로 그 중 판매 두수는 1,872두이다. 이외 ▲농업인의 전·겸업 비중을 비롯해 ▲농업 종사기간, ▲주요 농작 재 구입처, ▲농업 부채 유무, ▲교육 이수 희망 여부, ▲농업정보 수집 방법, ▲영농 후계자 유무, ▲영농활동의 어려움, ▲농업 지원 확대 희망 분야, ▲농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정책 등에 관한 조사내용도 포함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농업 현황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지출 주요 출처, 농업계획과 농업 활성화 정책 등이 무주농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역량을 모이준 호남지방통계청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호남지방통계청이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군을 사범지역으로 지정해 추진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스스로 통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과정을 매뉴얼로 작성 보급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사업은 통계 작성 단계별 표준 방법론과 개별 통계에 대한 공통명목을 제시한 것으로 통계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결과가 무주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무주군 농업·농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농업실태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무주군과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저탄소 먹거리 국산 밀 · 콩 소비촉진

aT-영양사회, 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사)대한영양사회(회장 이영은)는 16일 서울 aT센터에서 국산 밀·콩의 식량자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산 밀·콩의 소비촉진으로 저탄소 건강 먹거리 공급기관 마련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산 밀·콩을 공공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 구축 방안 수립 ▲국산 밀·콩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산 식량의 소비확산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캠페인 전개 등 ESG 실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국산 소비 확대는 국민에게 우리 땅에



서 자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입·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양 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캠페인’ 전개와 국산 콩을 재료로 한 대체육 활용 저탄소 식단 등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무주 사인머스켓 베트남 수출길

하노이 · 호치민 수출 성사

무주군이 당도가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우수농산물로 꼽히는 무주산(産) 사인머스켓이 16일과 17일 베트남 수출 길에 오른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 1천 843kg 선적에 이어 17일에는 호치민에 1,843kg을 선적함으로써 총 3,686kg(23,04상자)의 수출 선적의 성과를 냈다. 무주산(産) 사인머스켓의 베트남 수출 선적은 지난달 9일 무주 민남의 광장에서 첫 수출인관 문을 열었고 이번 두 번째 수출 성사가 이뤄진 것으로 무주산(産) 우수농산물을 베트남국민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무주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NH무역 등과 함께 러시아 등 3개국에 구원동사와 2억15,260㎏과 무주포도도 사인머스켓 1,174㎏을 선적하는 등 총 9억3,100만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로써 군은 이들 해외국가들과도 꾸준한 수출이 성사되면서 본격 해외



판매망을 갖추게 된 셈이다. 특히 국내 대형마트 판매가격 대비 39% 정도 높은 가격으로 출하해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산(産) 사인머스켓은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국내·외 애호가들로부터 많이 찾고 있는 품종이다”면서 “이번 수출을 계기로 베트남과 러시아에도 해외 수출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표준물류비로 15%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전북본부와 협의해 해외 수출국가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기안전교육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기관 ‘우수’ 인증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전기안전교육원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기관의 역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훈련과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 여부를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기안전교육원은 시설, 강사구성,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관리에 우수성을 높고 우수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5년 인증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박지현 사장은 “지난 21년간 체계적인 전기안전 교육 제공을 위해 펼친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안전 인재 양성의 리더 기관으로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교육 제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안전교육원은 전북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2023년까지 신사옥을 마련하여 전자교재(E-Book), VR 실습실 등을 갖춘 스마트 교육환경과 전기안전 실증단지과 연계한 발전원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18일부터 전통시장 크리스마스 마켓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전북지역 78여 곳을 포함한 전국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2021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한다. 이번 전통시장 크리스마스 마켓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들의 경영 회복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도입한 ‘전통시장 가는 날’, 그리고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이은 연말 소비 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 전통시장 크리스마스 마켓은 안전하고, 실속있으며, 재미가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